

내년 6·13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난 '5·9 장미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던 광주·전남 표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총선과 대선에서 1승1패씩을 주고 받은 양당이 또 한번 광주와 전남에서 양보할 수 없는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후보 경선 또한 관련 포인터에서 물밑 선거전과 유권자 관심도 일찌감치 뜨거워지고 있다.

# “지방 행정·교육 발전 내가 책임자”

## ‘호남 정치 1번지’ 민주당-국민의당 진검승부

### 광주시장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진검 승부가 전망된다.

민주당에선 윤창현 광주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 가운데 3선 국회의원인 강기정 전 의원, 이용섭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이형석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자천타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윤 시장은 5·18 이슈와 ‘광주형 일자리’ 등에 집중하며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최근 싱크탱크 조직인 ‘광주성장 더 큐브’를 중심으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민형배 구청장은 실형적이고 참신한 ‘자치일꾼’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영호 구청장도 ‘젊은 기수론’을 내걸고 시장 도전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20대 총선 직후 ‘광주 정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근



윤창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국회의원, 강기정 전 국회의원, 이용섭 부위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이형석 최고위원, 이병훈 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김윤석 사무총장

지역에서 강연 등을 하며 출마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마의사를 일절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김영록 농림부장관처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직에 머무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 최고위원은 당내 유일의 여성후보로 분류되며,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광주 총괄본부장을 지내며 정치적 추진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박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당내 호남 중진으로 화려한 정치 경력이 강점이며, 장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해 ‘예산통’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광주시경제부시장을 지낸 김윤석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사무총장도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무주공산’ 후보군 5~6명 치열한 경쟁 예고

### 전남지사

이낙연 전 지사가 국무총리로 영전하면서 현역 단체장이 공적인 만큼 내년도 전남도지사 선거는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체제로 지역 정치 구도가 변함에 따라 양당 간의 선거전이 또 한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9 장미대선'을 거치면서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지만, 전남지역 국회의원 의석 10석 중 8석이 국민의당 의원인 만큼 양 당이 필승을 보장할 최적의 후보를 내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내내 전남지사 선거 후보군으로는 5~6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지낸 이개호(58) 의원과 김영록(62)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사 등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전남지사 출마에 더욱 무게를 두고 지역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



박지원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9 대선'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을 맡아 전남 전 지역을 순회, 유세 강행군을 펼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상당히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김영록 장관도 거론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1년도 채 안 돼 장관직을 사퇴할 경우 청와대에 인사 부담 등을 줄 수 있어 출마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황주홍 의원의 도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지원 전 대표 출마설도 꾸준히 거론된다.

전남도위원과 여수시장,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친 주 의원은 행정력과 정치력 등에서 검증 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전남지사 선거에 두 차례 도전해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지역 내에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3선 강진군수를 역임하고 재선 국회의원인 황주홍 의원도 출마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박지원의원은 전남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근엔 순천과 광양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부권에서의 활동 폭도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인지도나 정치 경력 등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뛰어난 박 의원의 출마 여부는 내년 전남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거취도 주목된다. 3선 교육감이나 전남지사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장휘국 3선 가도에 총장출신 등 4명 도전장

### 광주시교육감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자천타천으로 5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여부다. 여기에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이견을 가진 이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학부모 등 유권자들이 지난 8년간 펼쳐온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출마 후보자들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의 내년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장 교육감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교육비리 근절과 청렴을 앞세운 ‘장 교육감 표 클린 교육정책’이 빛을 바랜 점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3선 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장 교육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전 교대총장, 지병문 전 전남대총장, 이정재 전 교대총장, 정희곤 전 시의원

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장 교육감의 대항마로 이정선 전 광주 교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 실천가인 이 전 총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특강·강연 등을 통해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연구단체인 ‘광주교육해바라기’를 통해 광주교육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정책선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선거가 처음인 만큼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도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총장은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

고 있다. 하지만 내년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과 정희곤 전 시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보수성향이 짙은 이정재 전 총장은 광주 사립학교법인 측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출신의 정 전 의원은 다른 후보와 연대 및 단일화를 할 경우 나름 파급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정 전 의원이 교육감 선거보단 시의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장만채 3선출마 최대 관심...전교조 후보와 대결

### 전남도교육감

내년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장만채 현 교육감의 3선 출마 여부다.

장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할 것인지, 전남도지사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장 교육감의 독주 체제 속에 다른 후보자들이 뒤를 쫓는 형국이다. 이는 장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진 판세다.

진보성향의 장 교육감은 합리·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특히 독서토론회, 기초·기본학력 향상, 특성화고 취업률 양적·질적 제고 등 교육행정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또한 재선을 거치면서 다져진 탄탄한 조직력과 현직이라는 프리미엄도 강점이다. 다만 전교조 출신 등 진보세력 후보자들이 자천타천 후보자로 거론되는 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석웅 전 위원장, 정연국 전 지부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

감안하면 해당 지지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장 교육감을 지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장 교육감에 맞서 장석웅 전 전교조 전국위원장과 정연국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출마의 뜻을 밝혔다. 또 구신서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도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후보 3명과 함께 다지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장 교육감에게 유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선 단일후보 형태로 후보가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도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고 전 총장은 장 교육감과 개인적으로 절친한 관계다. 양 후보가 동시에 출마할 것으로 점치는 이는 거의 없다. 장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로 방향을 돌리면 고 전 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않겠느냐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만약 장 교육감이 3선 도전을 포기할 경우 장 교육감의 조직력을 더한 고 전 총장과 전교조 단일후보간 양자구도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